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서 장 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현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도구들 중 하나는 데이트 폭력 질문지(Dating Violence Questionnaire: DVQ)이며, 최근 문항 수를 줄인 개정판(DVQ-R)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애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DVQ-R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한국판 DVQ-R과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 우울,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들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판 DVQ-R은 원판 DVQ-R과 동일한 5요인 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인 내적 일치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판 DVQ-R과의 비교결과, 연애경험이 있는 한국 청년들과 스페인 청소년 및 청년들의 성적 폭력 피해수준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효과 분석에서는 여성이 성적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남성은 신체적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준거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판 DVQ-R이 연애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데이트 폭력피해를 타당하게 평가하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폭력,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 질문지,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장원,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63-270-2927, E-mail: jangw.seo@gmail.com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행동으로(Banyard & Cross, 2008; Campbell et al., 2002), 여러 국가에서 빈번하게 보고되어 왔다(Desmarais, Reeves, Nicholls, Telford, & Fiebert, 2012; Garcia-Moreno, Jansen, Ellsberg, Heise, & Watts, 2006; Kubicek, McNeeley, & Collins, 2016). 이에 따라 여러 장면에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Hotaling & Sugarman, 1986; Ureña, Romera, Casas, Viejo, & Ortega-Ruiz, 2015). 결혼관계가 대표적인 친밀한 관계 영역임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지만,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들 간의 데이트 관계에서도 유사한 폭력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서경현, 2009; Desmarais et al., 2012; Johnson, Parker, Rinehart, Nail, & Rothman, 2015). 예를 들어, Angelone과 Mitchell, Lucente (2012)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이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확한 발생률을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률은 21%에서 47%에 이른다(Breiding, Chen, & Black, 2014; Pedersen & Thomas, 1992; Smith et al., 2017; Stacy, Schandel, Flannery, & Conlon, 1994). 이러한 수치는 결혼관계에서의 폭력 발생률(10~15%)보다도 높은 것이다(Straus & Ramírez, 2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dating violence)의 기본 개념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유사하며, 관계의 유형이 연인 관계에 국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데이트 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다양한 심리적 폭력(예: 과도한 통제 및 감시, 언어적 위협, 무시)으로 정의된다(Niolon et al., 2017). 데이트 폭력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정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도구는 Conflict Tactics Scale(CTS; Straus, 1979)과 개정판 CTS(CTS2;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이다. CTS는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을 다루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행동을 측정한다. CTS2에는 신체적 공격(physical assault)과 강제적 성행위(sexual coercion), 심리적 공격성(psychological aggression), 물리적 상해(injury), 협의(negotiation)를 측정하는 39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Straus et al., 1996). 이 도구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혼한 성인들에게 사용하도록 개발된 것들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도구는 Conflict in Adolescent Dating Relationships Inventory (CADRI; Wolfe et al., 2001)이다. 이 도구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가해와 폭력피해를 평가하는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 또한 데이트 폭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요인구조가 불안정한 경향이 있으며(Wolfe et al., 2001), 문항들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다양한 폭력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López-Cepero, Fabelo, Rodríguez-Franco, & Rodríguez-Díaz, 2016).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DVQ)가 개발되었다(López-Cepero et al., 2016; Rodríguez-Franco et al., 2010). DVQ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과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무심함(detachment), 모욕(humiliation), 강요(coercion),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 피해를 측정하는 4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 DVQ는 스페인어(Rodríguez-Franco et al., 2010)로 제작되었으며, 최근에 영어판이 제작되었다(López-Cepero et al., 2016). 스페인어판과 영어판 DVQ는 모두 내적일치도와 구성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López-Cepero et al., 2016; Rodríguez-Franco et al., 2010).

DVQ는 기존의 데이트 폭력 질문지들의 한계를 보완하는 우수한 도구이지만, 비교적 많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어 활용도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좀 더 적은 문항수로 구성된 개정판(DVQ-R)이 최근 제작되었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DVQ-R은 요인구조와 내적 일치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젠더기반 폭력과 도구적 폭력을 제외하고, 신체적/성적 폭력과 무심함, 모욕, 강요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구성되었다. 구성된 도구는 스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으며, 내적일치도가 양호하고, 5요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다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측정하는 기존 도구와의 관계나, 이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구성개념들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력한 데이트 폭력 평가도구인 DVQ-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연애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DVQ-R을 실시하였으며, 내적일치도와 요인구조,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과거에 연애경험이 있거나 현재 연인관계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미혼 성인 300명(남자 95명, 여자 20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 범위는 19세에서 37세($M=22.45$, $SD=2.88$)로 확인되었다.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참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된 온라인 설문시스템에 접속하여 질문에 응답하도록 안내되었다. 질문지는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며, 불성실 응답을 가려내기 위해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의 응답시간이 20분을 초과하여 불성실 응답은 없는 것으로 보고 모든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대학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측정 도구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 DVQ-R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피해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예: 그 사람은

나를 때렸다)과 성적 폭력(예: 그 사람은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옷을 벗게 했다), 무시함(예: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무시했다), 모욕(예: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모욕감을 주었다), 강요(예: 그 사람은 내가 떠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신체 등을 이용해) 나를 잡아두었다)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데이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폭력을 경험한 정도를 5점 척도(0점: 전혀 없었다 ~ 4점: 항상 그랬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판 DVQ-R의 개발 절차는 아래와 같다. 우선 원판 DVQ-R의 문항들을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문항들과 원판 문항들을 임상심리전문가 2명이 검토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전문번역가가 수정된 문항을 영어 및 스페인어로 역번역하였다. 역번역된 결과를 연구자와 역번역가가 다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내용을 결정하였다.

한국판 CTS2. CTS2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해와 피해를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traus et al., 1996). 동일한 폭력 내용에 대해 각각 가해경험(perpetration)을 묻는 10 문항(예: 나는 그 사람을 밀치거나 때렸다)과 피해경험(victimization)을 묻는 10문항(예: 그 사람은 나를 밀치거나 때렸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8점 척도(1점: 지난 1년 동안 1번 있었다 ~ 6점: 지난 1년 동안 20번 이상 있었다, 7점: 지난 1년 동안은 없었지만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

다, 8점: 경험한 적이 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원판 CTS2와 한국판 CTS2는 내적 일치도와 타당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정영, 1997; Straus & Douglas, 2004).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폭력가해 척도와 폭력피해척도가 각각 .74와 .7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CES-D.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는 우울 증상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 도구이며, 전체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adloff, 1977). 본 연구에서는 Cho와 Kim(1998)이 개발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우울과 관련된 신체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증상에 대한 문항들(예: 우울했다, 잠을 설쳤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0점: 극히 드물게 ~ 3점: 거의 대부분)로 평정한다.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판 CES-D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0 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Cho & Kim, 1998),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alpha=.87).

상태 특성 불안 척도 단축형.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Brief (STAI-B)는 불안수준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자기보고형 도구이며, 총 6개 문항(예: 불안하다, 긴장감을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다(Marteau & Bekker, 1992). 각 문항은 0 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 사이에서

평정하며, 문항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계산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TAI-B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Marteau & Bekker, 1992),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또한 .82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료 분석

DVQ-R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R 3.2.4 lavaan package (Rosseel, 2012)를 사용하였으며, 추정에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와 TLI(Tucker-Lewis index; Tucker & Lewis, 197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teiger, 1990),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보다 크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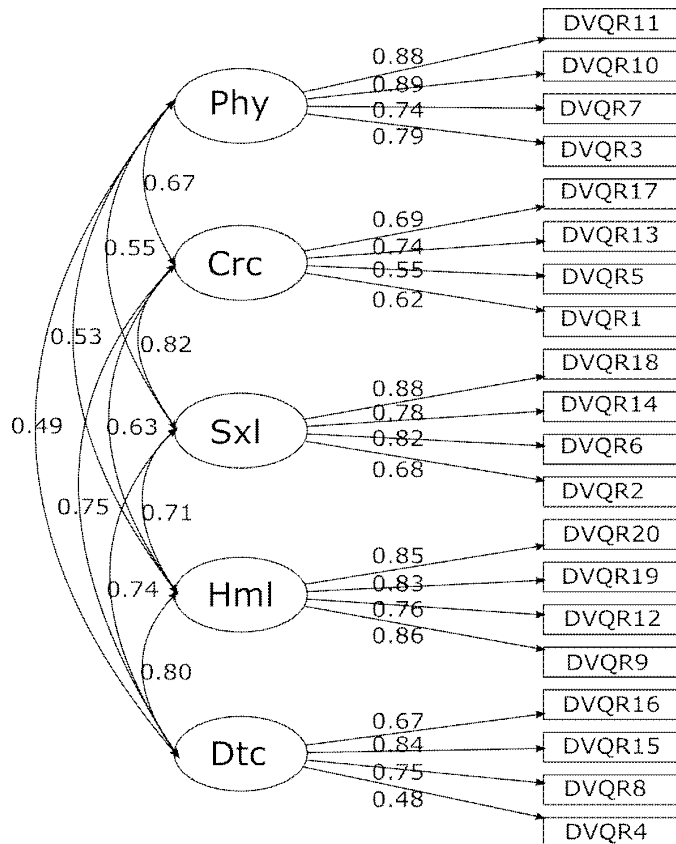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DVQ-R의 요인구조

주. DVQR=Dating Violence Questionnaire-Revised, Phy=신체적 폭력, Crc=강요, Sxl=성적 폭력, Hml=모욕, Dtc=무심함

용 가능한 모형으로 간주하며(Hu & Bentler, 1999), SRMR은 .1미만일 때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해석한다(Schermelleh-Engel, Moosbrugger, & Müller, 2003). RMSEA는 자유도가 작은 표본의 경우 .1보다 작은 값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Kenny, Kaniskan, & McCoach, 2014).

DVQ-R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및 연령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1이상이면 작은 상관관계, .3이상이면 중등도의 상관관계, .5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로 해석한다(Cohen, 1988). 성차의 효과는 *t*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등분산 가정은 Levene 검정을 사용하여 확인했다.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도를 보정하여 검증을 진행했다. 원판 DVQ-R과의 점수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 분석에는 Cohen's *d*를 사용하였다(Cohen, 1988). *d* 계산에는 독립적인 두 집단에 대한 pooled standard deviation이 사용되었다. Cohen (1988)의 지침에 따르면, *d*값이 .2이상일 때 작은 효과크기로 해석하고, .5이상일 때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8이 넘으면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해석한다.

결 과

요인 구조

Rodríguez-Díaz와 동료들(2017)이 제안한 5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FI = .90, TLI = .90, RMSEA = .09 (90% CI = .08-.10) SRMR = .06. 각 문항의 요인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내적 일치도

한국판 DVQ-R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5개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5에서 .90으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판 DVQ-R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치이다(표 1).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원판 DVQ-R(N=6,138)과 한국판 DVQ-R(N=300) 하위 척도별 내적 일치도 및 기술통계

하위 척도	<i>alpha</i>		평균		표준편차	
	원판	한국판	원판	한국판	원판	한국판
전체척도	.85	.93	6.09	10.50	6.77	12.66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75	.90	.41	.78	1.22	2.06
강요(coercion)	.64	.75	1.88	2.15	2.22	3.00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74	.87	.63	2.81	1.63	3.86
모욕(humiliation)	.72	.89	1.04	2.10	1.78	3.32
무심함(detachment)	.68	.78	2.12	2.66	2.40	3.24

주. DVQ-R =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Revised

원판 DVQ-R과의 점수 비교

본 연구 표본의 특성을 간단히 파악하기 위해 원판 DVQ-R 점수와 한국판 DVQ-R 점수를 비교하였다. 원판 DVQ-R의 표본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15세에서 26세 사이($M = 18.5$ 세, $SD = 2.09$)의 청소년 및 청년 6,13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분석결과, 연애경험이 있는 한국의 청년들과 스페인의 청소년 및 청년들의 데이트 폭력 점수 차이는 효과크기가 크지 않았다(Cohen's $d = .43$). 하위 척도 별로 분석해본 결과, 무심함(Cohen's $d = .18$)과 강요(Cohen's $d = .10$), 신체적 폭력(Cohen's $d = .21$)은 효과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욕의 경우에도 두 집단 간 점수 차이의 효과크기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ohen's $d = .39$). 하지만 한국의 청년들의 데이트 성폭력 경험 점수와 스페인 청년들의 점수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Cohen's $d = .74$).

성차 및 연령의 효과

한국판 DVQ-R 점수에서 성별의 효과가 유의

미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남녀집단에 대한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점에 대한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 = 2.69$, ns . t 검증 결과, 한국판 DVQ-R 총점의 남자 평균은 10.25점, 여자 평균은 10.61점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98) = -.23$, ns . 하위 척도들에 대한 등분산 검정 결과,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모욕 척도의 등분산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1.52$, $p < .01$, $F = 19.71$, $p < .01$, $F = 4.7$, $p < .05$. t 검증 결과, 무심함과 모욕, 강요 척도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298) = .80$, $t(245.68) = -.83$, $t(298) = .39$, ns . 한편 성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서는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성적폭력피해는 남성($M = 2.05$)에 비해 여성($M = 3.16$)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266.55) = -2.71$, $p < .01$, Cohen's $d = .31$, 신체적 폭력은 여성($M = .59$)에 비해 남성($M = 1.18$)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138.64) = 2.05$, $p < .05$, Cohen's $d = .27$.

한국판 DVQ-R로 측정된 데이트 폭력 수준이 연령과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한국판 DVQ-R 점수간의 상관분석

표 2. 한국판 DVQ-R과 다른 측정도구들 간의 상관계수($N=300$)

척도	DVQ-R	CTS2-V	CTS2-P	CES-D	평균	표준편차
CTS2-V	.71***				2.31	3.99
CTS2-P	.40***	.69***			2.02	3.93
CES-D	.37***	.31***	.28***		9.26	5.97
STAI-B	.25***	.22***	.17**	.66***	6.18	3.62

주. DVQ-R =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Revised; CTS2-V = Conflict Tactics Scale-2-Victimization; CTS2-P = Conflict Tactics Scale-2-Perpetration; 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STAI-B =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Brief

** $p < .01$, *** $p < .001$.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판 DVQ-R 총점과 연령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298) = .17, ns$.

준거 타당도 및 수렴 타당도

한국판 DVQ-R의 준거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CTS2 점수와 한국판 DVQ-R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체적인 상관계수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판 DVQ-R은 CTS2 폭력피해(victimization) 하위척도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CTS2 폭력가해(perpetration) 하위척도와는 중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은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이론적/경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Holmes & Sher, 2013).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판 DVQ-R 점수와 우울 및 불안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판 DVQ-R은 우울 및 불안과 대략 중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피해를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판 DVQ-R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원판 DVQ-R의 요인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신뢰도

분석에서도 Cronbach's alpha로 확인한 내적 일치가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문항들이 일관되게 데이트 폭력피해를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DVQ-R은 준거 타당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CTS2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폭력피해 하위 척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론적/경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가해(e.g., Shorey et al., 2012)와 우울 및 불안(Holmes & Sher, 2013)과도 대부분 중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수렴 타당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한국판 DVQ-R이 한국 청년들의 데이트 폭력피해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원판 DVQ-R 점수와 한국판 DVQ-R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청년들과 스페인 청소년 및 청년들이 경험하는 데이트 폭력피해 수준 차이는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 척도별로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하위 척도에서 효과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폭력피해 경험에서만 효과크기가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만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한국 청년들의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서양 문화권 청년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생들은 성적 폭력이 통제하기 어려운 성적 충동에 의

해 저절로 일어나는(spontaneous)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Kim, & Lim, 2010). 이러한 인식은 성적인 폭력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게 하며, 그에 따라 실제적인 성적 폭력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Lonsway & Fitzgerald, 1994).

성별과 한국판 DVQ-R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한국판 DVQ-R 총점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적 폭력피해는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하고, 신체적 폭력피해는 남성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적 폭력피해 경험은 일반적으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Chan, 2011; Hamby, 2014). 원판 DVQ-R 자료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 폭력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결과들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성적 폭력피해 경험에서 문화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ee와 동료들(2010)에 따르면, 한국의 남자 대학생은 성별에 따라 성적행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충동에 의해 성적 폭력이 저절로 유발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성적행동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할수록, 자신의 성적 행위가 폭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Kim, Lee, & Lee, 2019). 종합하면,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성적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신념에 의해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 가해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들의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성적 폭

력행동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은 성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amby, 2014). 다만 폭력의 유형을 세분화할 경우, 남성은 목을 조르거나(choke) 심하게 구타하는(beat up) 등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행동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뺨을 때리거나 멍푼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보다 약한 손상을 초래하는 폭력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Archer, 2002; Chan, 2011).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신체적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원판 DVQ-R 자료와도 동일한 결과이다(Rodríguez-Díaz et al., 2017).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한 가지 대안은 문항의 내용이다. DVQ-R에서 사용한 신체적 폭력 문항 내용을 보면 총 4문항 중 2문항이 ‘멍푼한 물건을 던졌다’와 ‘물건을 이용해 다치게 했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여성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Melton & Belknap, 2003). 나머지 2문항은 ‘나를 때렸다’와 ‘나의 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흔들었다’인데, 전자는 행위의 구체성이 낮은 편이고, 후자에는 서로 다른 강도/심각도의 행위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다. 남성들이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목을 조르거나 잡아끄는 행위(Melton & Belknap, 2003) 등은 4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리하면, DVQ-R의 신체적 폭력관련 문항은 여성의 신체적 폭력가해로 인한 피해를 좀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은,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하

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안은 DVQ-R의 이러한 특성을 그 자체로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폭력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충분히 확인되었지만, 각각의 폭력 유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주로 신체적 상처나 정신장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e.g., Caldwell, Swan, & Woodbrown, 2012) 상대적으로 남성의 신체적 폭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폭력 또한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수준의 물리적/심리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의 DVQ-R과 다른 데이트 폭력 측정도구들을 함께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탐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온라인 수집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경의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수준 등의 기본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정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편향되게 선발되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여성의 비율이 대략 70% 정도로 높았다. 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과 연구 참여 의지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확인되어 왔다(e.g., López-Cepero et al., 2016).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향을 고려하여 남녀의 성비를 맞추거나,

각 집단별 특성을 탐색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측정불변성(measurement invariance)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남자 집단의 크기가 작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여 측정불변성 검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판 DVQ-R과 우울 및 불안 수준의 관계를 탐색했다. 우울과 불안은 데이트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이지만(Holmes & Sher, 2013), 폭력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특성들(예: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또한 DVQ-R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구성개념들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수렴타당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DVQ-R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온라인 자료 수집의 특성 상 참가자들의 응답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여 부득이 관련 도구들을 배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개념들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DVQ-R의 변별 타당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판 DVQ-R이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피해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도 연구: 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Angelone, D. J., Mitchell, D., & Lucente, L. (2012). Predicting perceptions of date rape: An examination of perpetrator motivation, relationship length, and gender role belief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3), 2582-2602.
- Archer, J. (2002). Sex differences in physically aggressive acts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4), 313-351.
- Banyard, V. L., & Cross, C. (2008). Consequences of teen dating violence: Understanding intervening variables in ecological context. *Violence Against Women*, 14(9), 998-101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eiding, M.J., Chen J., & Black, M.C. (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 2010*.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aldwell, J. E., Swan, S. C., & Woodbrown, V. D. (2012).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outcomes. *Psychology of Violence*, 2(1), 42-57.
- Campbell, J., Jones, A. S., Dienemann, J., Kub, J., Schollenberger, J., O'Campo, P., ... & Wynne, C. (2002).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2(10), 1157-1163.
- Chan, K. L. (2011). Gender differences in self-repor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2), 167-175.
- Cho, M. J., & Kim, K. H. (1998). Use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 in Korea.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5), 304-31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Desmarais, S. L., Reeves, K. A., Nicholls, T. L., Telford, R. P., & Fiebert, M. S. (2012). Prevalence of physical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Part 1: Rates of male and female victimization. *Partner Abuse*, 3(2), 140-169.
- García-Moreno, C., Jansen, H. A., Ellsberg, M., Heise, L., & Watts, C. H. (2006). Prevalenc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he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The Lancet*, 368, 1260-1269.
- Hamby, S. (2014).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research: Scientific progress, scientific challenges, and gender. *Trauma, Violence, & Abuse*, 15(3), 149-158.
- Holmes, K., & Sher, L. (2013). 10 Dating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5, 257-261.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2), 101-12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hnson, R. M., Parker, E. M., Rinehart, J., Nail, J., & Rothman, E. F. (2015). Neighborhood factors and dating violence among youth: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 Medicine*, 49(3), 458-466.
- Kenny, D. A., Kaniskan, B., & McCoach, D. B. (2014). The performance of RMSEA in models with small degrees of freedo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4(3), 486-507.
- Kim, Y., Lee, E., & Lee, H. (2019). Sexual double standar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and sexual assertive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Asian Nursing Research*, 13(1), 47-52.
- Kubicek, K., McNeeley, M., & Collins, S. (2016). Young men who have sex with men's experiences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2), 143-175.
- Lee, J., Kim, J., & Lim, H. (2010). Rape myth acceptanc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gender, attitudes toward women, and sexual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7), 1200-1223.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 López-Cepero, J., Fabelo, H. E., Rodríguez-Franco, L., & Rodríguez-Díaz, F. J. (2016). The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 Validation of the Cuestionario de Violencia de Novios using a college sample from the United States. *Violence and Victims*, 31(3), 438-456.
- Marteau, T. M., & Bekker, H. (1992). The development of a six item short form of the state scale of the Spielberger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301-306.
- Melton, H. C., & Belknap, J. (2003). He hits, she hits: Assessing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officially reported intimate partner violenc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3), 328-348.
- Niolon, P. H., Kearns, M., Dills, J., Rambo, K., Irving, S., Armstead, T., & Gilbert, L. (2017). *Prevent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A Technical Package of Programs, Policies, and Practices*.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Pedersen, P., & Thomas, C. D. (1992).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in a Canadian university sample.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4(4), 490-50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dríguez Franco, L., López-Cepero Borrego, J., Rodríguez Díaz, F. J., Bringas Molleda, C., Antuña Bellerín, M. D. L. Á., & Estrada Pineda, C. (2010). Validación del cuestionario de violencia entre novios (CUVINO) en jóvenes hispanohablantes: Análisis de resultados en España, México y Argentina. *Anuario de Psicología Clínica y de la Salud*, 6, 45-52.
- Rodríguez-Díaz, F. J., Herrero, J., Rodríguez-Franco, L., Bringas-Molleda, C., Páino-Quesada, S. G., & Pérez, B. (2017). Validation of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R (DVQ-R).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7(1), 77-84.
-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2), 1-36.
- Schemelleh-Engel, K., Moosbrugger, H., & Müller, H.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 Shorey, R. C., Elmquist, J., Ninnemann, A., Brasfield, H., Febres, J., Rothman, E. F., ... & Stuart, G. L.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victimization, and mental

- health among women arrested for domestic violence. *Partner Abuse*, 3(1), 3-21.
- Smith, S.G., Chen, J., Basile, K.C., Gilbert, L.K., Merrick, M.T., Patel, N., Walling, M., & Jain, A. (2017).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0-2012 State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Stacy, C. L., Schandel, L. M., Flannery, W. S., & Conlon, M. (1994). It's not all moonlight and roses: Dating violence at the University of Maine, 1982 - 1992. *College Student Journal*, 28(1), 2-9.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 & Douglas, E. M. (2004). A short form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and typologies for severity and mutuality. *Violence and Victims*, 19(5), 507-520.
- Straus, M. A., & Ramírez, I. L. (2003). *International dating violence study*. New Hampshire: Family Research Laboratory.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Ureña, J., Romera, E. M., Casas, J. A., Viejo, C., & Ortega-Ruiz, R. (2015). Psychometrics properties of Psychological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 A study with young cou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15(1), 52-60.
- Wolfe, D. A., Scott, K., Reitzel-Jaffe, D., Wekerle, C., Grasley, C., & Straatman, A. L.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nflict in adolescent dating relationships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13(2), 277-293.

원고접수일: 2020년 8월 24일

논문심사일: 2020년 9월 10일

게재결정일: 2020년 12월 13일

Validation of the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Revised in Young Korean Couples

Jang-Wo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ating violence (DV) is considered an important phenomenon which causes various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amongst young couples. One of the most widely-used measures of DV is the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 (DVQ), and recently, a revised brief version of the DVQ(DVQ-R) has been developed for widespread use. This study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DVQ-R in 300 Korean young adults who had been engaged in romantic relationships. Participants completed the DVQ-R, as well as other measures that assess physical/sexual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depression, and anxiety.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five-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DVQ-R, an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measure was satisfactory. The effect size for the difference between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scores for this study's participants, and those of another study's Spanis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as relatively large. Female participants in this study reported more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than male participants, whereas male participants reported more physical violence victimization than female participants. The effect of age on the DVQ-R was not significant, and the criterion valid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the measure were satisfactor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DVQ-R is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DV in young Korean couples.

Keywords: violence, dating violence, dating violence questionnaire, validity

부록

개정판 데이트 폭력 질문지(DVQ-R)

1. 그 사람은 내가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정을 파면서 나의 사랑을 시험했다
2. 나는 (성관계를 할 수 없는)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한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3. 그 사람은 나를 때렸다
4. 그 사람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늘 늦게 도착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무책임했다
5. 그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6. 그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좋아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집스럽게 나를 만지려고 했다
7. 그 사람은 나의 뺨을 때리거나, 내 몸을 밀거나, 흔들었다
8. 그 사람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나 두 사람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9.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하거나, 평가절하 하거나, 모욕감을 주었다
10. 그 사람은 몽툰한 물건들을 내게 던졌다
11. 그 사람은 물건을 이용해 나를 다치게 했다
12. 그 사람은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비웃었다
13. 그 사람은 내가 떠나려고 할 때 물리적으로(신체 등을 이용해) 나를 잡아두었다
14. 나는 특정한 성적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15. 그 사람은 나의 감정을 무시했다
16. 그 사람은 자신이 화가 났다는(짜증났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별다른 설명 없이 며칠 동안 사라지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17. 그 사람은 나의 공간을 침범했다
18. 그 사람은 내가 원치 않을 때에도 옷을 벗게 했다
19. 그 사람은 나의 신념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를 비웃거나 모욕했다
20. 그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견해나 생각을 비웃거나 모욕했다